

2022-2 클라시쿠스(사)

# 인공지능 개발, 진화인가 퇴화인가?

- 창작을 중심으로

202221768 문화콘텐츠학과 이현비

## 목 차

### I. 서론

### II. 창작에서의 인공지능

#### II-1. 기존의 창작에 대한 인공지능 전망

#### II-2. 딥러닝

#### II-3. AI의 창작 사례

### III. AI의 창작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 IV. 창작에서 AI의 사용에 대한 견해

### V. 마무리

### ※ 참고문헌

## I. 서론

21세기 현대 사회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의 많은 일상에 도입되고 있다. 휴대폰의 얼굴 인식, 인공지능 비서, 스마트홈 등 사소한 것부터 우리의 삶에 중대한 부분까지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사람이 해오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던 창작의 영역에서까지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고 현재 창작 인공지능은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란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창작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윤리적 기준은 아직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더 많은 창작의 영역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관한 무형적인 기준들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더불어 창작자들이 인공지능의 작품에 대응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지 못해 창작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인공지능의 창작에 따른 문제점, 그중에서도 아직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의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함으로써 창작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데 조금의 보탬이 되고자 한다.

## II. 창작에서의 인공지능

### II-1. 기존의 창작에서의 인공지능 전망

보통 인공지능이 사용되면 없어질 것이라 말하는 직업들이 있다. 제조업부터 금융업, 요리사, 의사 등등이 그 예시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고용정보원에서 뽑은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대체되지 않을 직업에 화가, 애니메이터, 작가 등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sup>1)</sup> 하지만 불과 6년 만에 이 예측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고, 작곡을 하고, 글을 써주는 등의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창작이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던 관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 II-2. 딥러닝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은 무엇일까? 바로 딥러닝 기술이다. 세계 제일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선 딥러닝을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스템이 학습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는 기계 학습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AI 시스템을 데이터를 통해 획득한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패턴을 인식하고, 권장 사항을 만들고, 적응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딥러닝을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은 해당 지식을 사용하여 마침내 인간처럼 반응하고 행동하게 된다.

인공지능은 이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창작을 한다. 수많은 창작물 데이터를 통해 얻은 패턴을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딥러닝 기술이 필수적으로 작용하는데 바로 여기서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

1) “인공지능 시대에도 끄떡없는 30개 직업은?”, 『노컷 뉴스』, 2016.03.24., <<https://www.nocutnews.co.kr/news/4567706>>. (2022.12.05.검색)

## II-3. AI의 창작 사례

우선 딥러닝으로 인한 인공지능 창작의 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인공지능이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방식으로 창작물을 생성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며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해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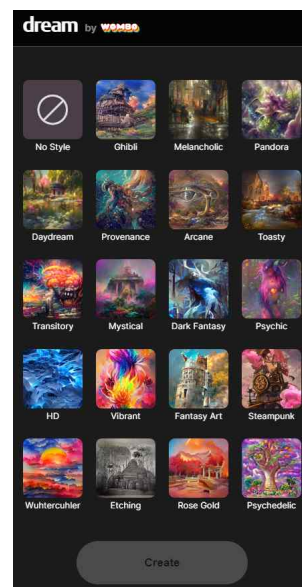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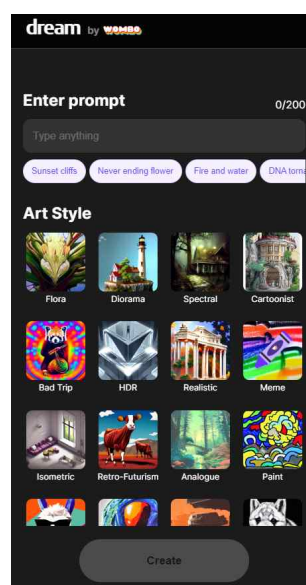
현재 창작을 하거나 혹은 도와주는 인공지능은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림 같은 경우엔 인터넷에 단순히 검색만 해도 창작 인공지능 사이트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직접 인공지능을 이용해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창작은 보편화된 지 오래이다. 이처럼 현재 인공지능의 창작은 일반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무수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림, 시, 작곡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을 소개해볼까 한다.

### -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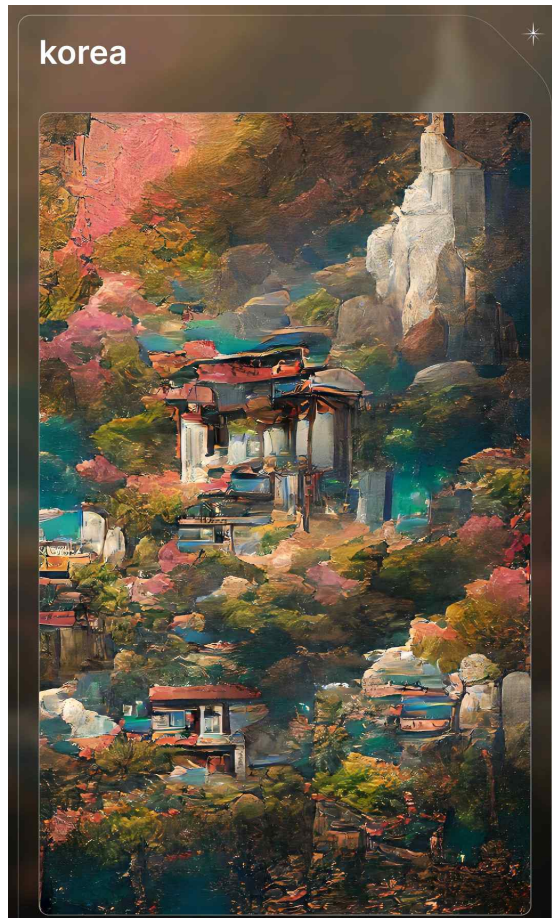
현재 인공지능의 창작을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그림이다. 검색만 하면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사이트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사이트들은 사용자의 창작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거나 혹은 인공지능 스스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창작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이트로는 구글의 '딥 드림 제네레이터(Deep Dream Generator)'가 있다. 이 '딥 드림'은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그림이나 사진을 업로드한 후 원하는 질감을 입력하면 업로드한 이미지를 입력한 질감으로 바꾸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기존의 이미지를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창작이 아닌 간접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와 화풍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사이트들 또한 존재한다. 그중 하나인 'wombo.art'라는 사이트를 직접 이용해보았는데 이 사이트는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판타지, 스팀펍크, 파스텔 등등 많은 그림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그림이 나오는 방식이다.



위의 사진 속 'Enter prompt' 칸에 키워드를 200자까지 입력하고 'Art Style'에 있는 여러 가지 화풍 중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직접 사용해보기 위해 키워드는 한국(korea)을 입력했고 화풍은 'Daydream'으로 선택했다.



위의 그림은 일련의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그림이다. 이 그림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번거로운 절차도, 심지어 로그인조차도 하지 않고 손쉽게 그림 한 장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사이트는 누구나 이용해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또한 사이트마다 그려주는 그림의 특징이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춰 원하는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

- 시

올해 8월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 '아트센터 나비'가 주최한 'AI공포라디오쇼'에서 인공지능은 참가자들이 제시한 엉뚱한 소재를 갖고 실시간으로 단편 공포물을 만들었다.<sup>2)</sup> 이 게임에 사용된 인공지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Open AI)'의 초거대 언어모델 GPT-3으로 카카오 계열 AI 전문회사 카카오브레인이 한국어에 특화한 'KoGPT'를

2) “즉석에서 괴담 만들고 시도 써… 'AI 창작예술' 시대 열렸다”, 『중앙일보』, 2022.08.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407#home>>, (2022.12.05. 검색).

출시하면서 한국어 창작이 가능해졌다. 이 인공지능은 한국어로 키워드를 넣으면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와 소설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AI는 ‘시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인터넷 백과사전과 뉴스 등을 읽으며 한국어를 공부했고 1만 3천여 편에 달하는 시를 읽으며 작법을 배워 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알려졌다.<sup>3)</sup>

#### - 작곡<sup>4)</sup>

작곡을 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스타트업 ‘포자랩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의 장르와 분위기 등을 선택하면 인공지능이 이에 맞게 작곡해 준다고 말한다. 포자랩스에 따르면 이곳의 작곡 AI는 그동안 사람이 작곡한 노래 63만여 개를 학습했고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실제 작곡가들이 이곳에서 근무하며 데이터용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포자랩스의 AI가 작곡한 음악은 최소 32000곡으로, 실제로 작곡된 음악 중 일부는 MBC드라마의 OST로 사용될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 Ⅲ. AI의 창작과 관련한 문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림을 그리든 시를 쓰든 작곡을 하든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내놓은 방식은 대개 유사하다.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수백만 개의 연습 샘플을 이용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한 후, 수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스스로 발견하고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하여 그림, 시, 노래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학습교재로 삼고 더불어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또 높은 정확도를 위해 많은 양의 표본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다.<sup>5)</sup>

#### 1) 저작권 침해 및 창작자 권리 침해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딥러닝 기술이 필수적이고 또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선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있어야 한다. 또한 높은 정확도와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특성상 인공지능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경우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sup>6)</sup> 더불어 몇십만 개를 넘어서는 데이터를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이 자료들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또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다.

더불어 인공지능의 데이터로 사용되는 창작물들은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는 커

3) “인공지능(AI)이 쓴 시(詩), 사람들 마음 울릴까?”, 『Ai타임즈』, 2022.08.01.,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094>>, (2022.12.05.검색).

4) ““어떤 장르 원하세요?”… AI 작곡가, 10분만에 한 곡 똑딱”, 『동아일보』, 2022.09.0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903/115282746/1>>, (2022.12.05.검색).

5) 조서현, 「딥 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예술표현 사례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제22권,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19, 198쪽.

6) “[전문가기고]로봇이 그린 그림과 저작권 논란”, 『전자신문』, 2022.08.08., <<https://www.etnews.com/20220808000163>>, (2022.12.05.검색).

녕 저작권 사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되기 때문에 창작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볼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만화, 삽화, 2D 애니메이션 디지털 제작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클립 스튜디오’에서 ‘이미지 생성 AI 팔레트’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많은 창작자들의 항의로 인해 기능 탑재를 중지하였다. 2022년 12월 2일 ‘클립 사이트’의 기능 탑재 중지에 관한 공지에서 밝힌 창작자들의 의견엔 ‘AI의 이미지 생성은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다’ 등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AI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었는데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인공지능의 창작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창작에 이루어지는 창작자들의 데이터 사용은 저작권 침해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관한 논의와 기준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 2) 저작권 인정 문제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들어진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말했듯 인공지능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를 데이터로 삼아 학습한다. 그렇다면 많은 창작자들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과연 온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가? 실제로 미국에서 열린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 제출된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이 1위에 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sup>7)</sup> AI가 그린 그림이 예술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작품을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로 볼지, 혹은 여러 그림을 짜깁기한 표절로 볼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창작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와 관련된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IV. 창작에서 AI의 사용에 대한 견해

## 1)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대부분은 오픈 웹에서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집된 것들이다. 더불어 저작물을 데이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 행위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입력 자료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sup>8)</sup> 이처럼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인터넷상에 공개된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인공지능의

7)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1위..이것도 예술인가?”, 『MBC뉴스』, 2022.09.04.,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404569\\_35680.html](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404569_35680.html)>, (2022.12.05. 검색)

8) 김인철, 「인공지능은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9, 118쪽.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인터넷상에 쉽사리 공유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창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작품이 아무 기별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또 다른 작품으로 바뀔 채 새로운 저작권으로 등록된다면 그들의 창작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장기적으론 창작 시장, 즉 음악, 미술과 같은 문화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 2) 저작물의 정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또한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0)</sup>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은 이 저작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성립요건 또한 충족할 수 없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입력된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상이나 감정은 들어있지 않다. 인공지능은 그저 조건에 들어맞는 결과를 출력해 낼 뿐이다. 설령 만들어진 작품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무형의 것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린 인간으로부터 입력되고 주입된 것이 지 인공지능이 독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인간이 만든 모든 창작물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작품은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어떤가? 인공지능 스스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의식이 이루어지는가? 이 작품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는가?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그저 사용자의 명령에 따른 결과값일 뿐이다.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은 채 다른 창작자들의 노력을 훔쳐 만든 결과물은 창작이라 볼 수 없다. 그저 조건에 맞는 조각들을 가져와 채운 퍼즐일 뿐이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없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3)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논의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논의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에선 지식재산권법에서 창작행위는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하며, 인간이란 법에서 말하는 자연인만 의미<sup>11)</sup>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물은 아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2)</sup> 반대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

9)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10)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정책 홍보물,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3.jsp](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3.jsp)

11) 계승균, 인공지능과 저작권, 『저작권 문화』, 제308호, 2020, 4-9.(조연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9권, 한국언론법학회, 2020, 73쪽에서 재인용)

12) Lee, E., Digital Originality,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여해야 한다는 의견에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sup>13)</sup>

이처럼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인정 문제는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논의의 과정엔 ‘무단으로 수집된 창작 데이터’라는 전제가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저작자에 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을 뿐 인공지능 창작의 과정에 대한 타당성 및 정당성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다른 창작물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의 창작 또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창작 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V. 마무리

인공지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기 때문에 노동에서 벗어나 자유를 갖게 된 인간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기회가 더 증가할 것이고 이는 정신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창의적인 생각마저 인공지능이 점점 손을 뻗고 있다. 실제로 진행된 인공지능 작품과 인간 작품에 대한 감상 실험에서 3가지 주제의 그림 중 세 가지 모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예술성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sup>14)</sup> 물론 이 실험에서 작품을 그림 사람의 실력이나 마음가짐, 예술성을 평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 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세 개의 주제에서 모두 인공지능의 작품이 더 높은 평가를 얻었다는 것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 실험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작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한다고 해서 인간의 창의적 생각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또한 인공지능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창작자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성장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결국 이전의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물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sup>15)</sup> 더불어 창작의 영역에 종사하고 있거나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기는 쉽게 꺾일 것이며 결국 창작 시장은 인공지능의 창작물로 장악될 것이다.

이처럼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인공지능 개발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인간의 창의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도구로써 인간에게 이용되어야 하며 인간은 주인으로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그 관계가 뒤집힌다면 인공지능 개발은 인간의 ‘진화’가 아니라 ‘퇴화’로 전락할 것이다.

---

14. 2012, 919-957.(조연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9권, 한국언론법학회, 2020, 73쪽에서 재인용)

13)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85쪽.

14) 이재박, 「자동창작시대의 예술 작품-인공지능은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인문학연구』 제5권,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20, 36쪽.

15) 김인철, 「인공지능은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법)』 13권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9, 124쪽.



## ※ 참고문헌

- 김민재 (2016) “인공지능 시대에도 끄떡없는 30개 직업은?”, 『노컷 뉴스』, (3월 24일).
- 김윤명 (2022) “[전문가기고]로봇이 그린 그림과 저작권 논란”, 『전자신문』, (8월 8일).
- 김인철, 「인공지능은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9, 101-131쪽.
- 김하경 (2022) ““어떤 장르 원하세요?”… AI 작곡가, 10분만에 한 곡 똑딱”, 『동아일보』, (9월 3일).
- 나정원 (2022) “즉석에서 괴담 만들고 시도 써… 'AI 창작예술' 시대 열렸다”, 『중앙일보』, (8월 10일).
-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83-110쪽.
- 윤영주 (2022) “인공지능(AI)이 쓴 시(詩), 사람들 마음 울릴까?”, 『Ai타임스』, (8월 1일).
- 이재박, 「자동창작시대의 예술 작품-인공지능은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인문학연구』 제5권,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20, 27-54쪽.
- 정동훈 (2022)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1위…“이것도 예술인가?””, 『MBC뉴스』, (9월 4일).
- 조서현, 「딥 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예술표현 사례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제22권,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19, 193-211쪽.
-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9권, 한국언론법학회, 2020, 71-113쪽.
- 법무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정책 홍보물.